

#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로 의식 연구

김경란\*·김일방\*\*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설계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제언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의 실태 및 진로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진로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적실성이 높은 진로교육을 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역 각각 3개 중학교 학생 총 672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현행 진로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진로교육을 받아본 학생들은 많지만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현행 진로교육에 내재한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교육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주저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교육학 석사.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부교수.

주제어 : 진로교육, 제주지역 중학생, 진로교육의 실태, 진로의식, 자아 이해, 진로선택의  
경향.

## I. 서론

진로교육은 꿈을 찾아가게 하는 교육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인 것이다.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게 하는 마법사는 아니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꿈을 찾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현대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직업의 생성 소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 직업세계 또한 급속도로 세분화,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생 동안의 직업경력을 관리하며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의 평생직장의 개념은 희박해지고 있기에 평생 자신의 직업경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진로개발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부에서도 1980년대 이후로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조직 면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시작으로 각 시도 교육연구원의 진로교육연구부 설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진로정보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왔고, 교육과정 면에서는 1981년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진로교육을 명시한 이후,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의 만성적인 저성장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크게 강조하였다(진로교육학회, 2011). 특히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온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부각시켜 놓았다. 예를 들면 진로활동을 봉사활동, 동아

리활동, 자율활동과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시켰으며, 중학교 과정에 「진로와 직업」이라는 선택과목을 신설한 점이 그 증거다.

진로발달에서 중학교 시기는 진로탐색의 시기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인식 활동의 기반 위에서 현실적인 직업선택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성인의 직업가치관이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의식은 진로탐색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사실 진로선택은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척도이고, 개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계열선택이 이루어지며, 이 선택은 장래의 직업결정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연구와 실천은 크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제주지역의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나 실천은 많이 미흡해 보인다. 제주지역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실태를 살펴봤더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몇 건 있지만<sup>1)</sup>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연구자는 제주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가치 또한 클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주지역에서의 진로교육이 걸돌고 있고 따라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4월 발표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학교의 진로교육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1) 현석중, 「제주도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진로인식 수준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부교혁, 「제주도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고은영, 「제주지역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운영 실태와 교사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중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는 43개교 중 18개 학교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의 「진로와 직업」과목 채택률은 11%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600시간 연수를 통해 습득한 상담관련 정보마저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주지역의 진로교육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본다. 진로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그 중요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고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널리 잠재되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의식을 불식시키고 ‘진로교육은 정말 중요하다’는 의식을 확대시켜 나가려면 진로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의 실태와 중학생들의 진로의식에 대해 파악한 연후에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중학교 진로교육의 중요성

#### 1) 학교 교육환경 변화의 측면

지금까지 중학생의 진로교육은 학교현장에서 부실하게 운영됨은 물론 연구측면에서도 고등학생의 진로교육에 비해 관심을 적게 받아왔다. 대학입시나 취업으로 직접 연결되는 고교 단계의 진로교육에 비해 중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은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어온 것이다(서유정·김승보·고재성, 2011). 하지만 학생들은 중학교 단계에서 일반계고·특성화고의 진로선택은 물론 인문계·자연계의 계열선택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고교 자율화 및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여러 형태의 고등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선발방식 또한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중학생들이

진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고교 진로결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등학교의 진로교육은 단순히 진학지도에 치우쳐왔다.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계 고교로의 진학이 선호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진로교육을 포함한 입시와 관련성이 적은 교과목 및 비교과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일반계고·특성화고, 문과·이과, 대학학과 등의 다양한 진로선택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며, 학습효과 저하, 대학 진학 과잉, 재수와 편입의 난립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선택의 중심을 학업성적에 두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의사, 법조인, 공무원 등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일부 직종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직종에 대한 높은 선호와 제조업 등의 생산직종에 대한 외면은 사회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고교 자율화·다양화 정책을 통한 고교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김승보·방혜진, 2010).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중학교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특별히 중학생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진로 활동을 하위영역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신설되었으며,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이 설정된 것이 그 증거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좋은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진로교육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결국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힘든 과제 하나를 더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의 방향과 실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중학생의 발달 단계적 측면

진로교육은 초등학교 수준부터 발달단계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된 이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며 하나의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택한 직업에서 잘 적응하고 발전함으로써 성공적인 자아상을

구축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교육이다(김충기, 2000). 즉 진로교육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중학생은 학생 자신이 처음으로 자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로서 진로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진로발달 단계는 진로탐색의 시기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진로인식 활동의 기반위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준비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진로교육을 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에선 자신의 특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자기가 소망하는 직업적 특성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진로교육활동이 요구된다.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탐색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적 기능을 길러주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 성격, 흥미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생각해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는 단계라 할 수 있다.

## 2. 중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진로교육의 목표는 진로교육의 방향과 기본틀을 제시해주고, 교육정책 수립과 평가의 지침이 되며, 학교 진로교육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는 198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를 시작으로 이영대(2004)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수준의 공식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때마다 요소와 영역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나라 초·중·고 진로교육 목표와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 학생발달 수준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진로교육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는 학교급 간의 목표를 체계화함으로써 중복성과 연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식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를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

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라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 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의 4영역으로 구분하고 학교급별로 세부적인 진로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초등학교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진로탐색과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소양을 기르도록 하고, 중학교는 기초적인 진로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이후 진로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진로와 관련한 직업이나 교육기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디자인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중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를 보면 ①긍정적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역량을 발전시킨다. ②직업 세계의 다양함과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을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③중학교 이후의 교육경로, 직업인 역할 모델을 비롯한 관심 분야의 진로·직업에 관한 다양한 탐색과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직업을 탐색하는 역량을 기른다. ④자신과 진로·직업 및 교육 세계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중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기른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에서 중학교 단계는 일반적인 교육에서 전문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기이고, 신체적인 남녀 간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며, 개인의 정체감을 확립하면서 주체적인 역량을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때문에 중학교 진로교육의 중심은 진로의 의미와 진로탐색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함양,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체험학습 및 자기개발 함양에 있다. 즉, 중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탐색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진로·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며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 Ⅲ. 연구 설계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12년 4월에서 6월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중학교 43개교 중에서 제주시 3개교, 서귀포시 3개교, 읍면지역 3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학교별로 1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672부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연구 도구는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9 진로교육 지표조사와 중학생의 진로교육실태 및 요구조사, 마순권(2004), 김자옥(2006)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실태파악을 위한 전(前)단계인 일반적인 사항과, 진로교육 실태, 진로의식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영역은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로교육 실태와 요구, 중학교 진로교육 목표 중 진로정보 탐색, 자아 이해, 진로선택 경향,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진로교육 실태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진로교육에 만족하는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교육 내용이나 방법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학교 단계 진로교육에서 강조되는 학생들의 진로정보 탐색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진로 정보를 얻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의식과 관련해서는 자아 이해 정도, 즉 진로계획에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 설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진로선택의 경향, 즉 진로결정과정에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진로준비 과정에서 부딪치는 진로장벽을 알고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즉 중학생 시기에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갖고 직업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을 극복하여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에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질문지 구성

질문영역	질문내용	문항수
일반적인 사항	성별 및 학년, 사는 지역 학생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 및 학업성적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맞벌이 여부	8
진로교육 경험 및 요구	진로교육 경험 유무 진로교육 만족도 원하는 진로교육 방법 및 내용 진로교육 장애요인 등	7
진로정보 탐색	시설 진로교육기관 상담 경험유무 진로정보 탐색 가능 여부 진로정보 습득 정도	3
자아이해	최종 인생목표 및 희망직업 가장 큰 고민거리 학교 공부의 의미 진로·직업에 대한 생각여부 적성·흥미 인지정도 소질 적성을 알게 된 방법 자신의 소질 탐색에 대한 욕구	8
진로선택의 경향	진로선택에 대한 상의 대상 진로선택 장애 요인 진학 희망 고등학교 대학 진학이유 희망 직업이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경우 결정방법	5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인생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직업을 갖는 이유 여성의 직업참여에 대한 인식 직업 귀천의식 성별에 따른 일의 차이 직업정보 인지 정도	7
계		38

### 3. 자료 처리

설문에 응답한 인원 중 항목에 대한 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는 spss v12 버전을 활용하였으며, 항목별 카이제곱검정과 ANOVA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기본요인으로는 남녀, 학년, 사는 곳, 경제수준, 학업수준,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을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sup>2)</sup>

### 1. 진로교육 실태

#### 1)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아본 경험

〈표 2〉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아본 경험(단위 : 명, %)

		있다	없다	전체	$\chi^2(p)$
전체		537	133	670	*무응답 <sup>2</sup>
		(80.1)	(19.9)	(100.0)	
학년	1학년	250	77	327	5.486 (0.019)
		(76.5)	(23.5)	(100.0)	
	3학년	287	56	343	
		(83.7)	(16.3)	(100.0)	
지역별	제주시	259	48	307	11.408 (0.003)
		(84.4)	(15.6)	(100.0)	
	서귀포시	164	61	225	
		(72.9)	(27.1)	(100.0)	
	읍면동	114	24	138	
		(82.6)	(17.4)	(100.0)	

2) 제Ⅲ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본 연구를 위한 설문 문항 수는 총 30문항(일반사항 문항 제외)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지면의 관계로 본 연구의 목적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개의 문항들만을 엄선하여 이에 대한 결과와 해석을 싣고 있음을 밝힌다.

학교에서 진로 관련 교육이나 지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80.1%이며, 경험이 없는 학생은 19.9%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76.5%, 3학년이 83.7%로 3학년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84.4%, 서귀포시 72.9%, 읍면동 82.6%로 나타나 서귀포시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진로교육 유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읍면지역이 시지역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를 변인별로 분석했다면 학년별( $\chi^2=5.486, p=0.0019$ ), 지역별( $\chi^2=11.408, p=0.003$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적 결과와 비교해볼 때 진로 관련 교육 유경험 학생 비율 80.1%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구한 1998년 ‘중학생의 진로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의 비율 28.4%, 2009년 ‘진로교육 지표조사’의 비율 55.9%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그동안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이를 실시해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받았던 진로교육의 도움 정도

<표 3> 학교에서 받았던 진로교육의 도움 정도(단위 : 명, %)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체	R(p)
전체		11 (2.0)	143 (26.4)	278 (51.4)	77 (14.2)	32 (5.9)	541 (100.0)	*무응답 131
학년	1학년	8 (3.2)	75 (29.9)	129 (51.4)	25 (10.0)	14 (5.6)	251 (100.0)	7.499 (0.006)
	3학년	3 (1.0)	68 (23.4)	149 (51.4)	52 (17.9)	18 (6.2)	290 (100.0)	
지역	제주도	5 (1.9)	71 (27.3)	136 (52.3)	32 (12.3)	16 (6.2)	260 (100.0)	9.428 (0.307)
	서귀포시	1 (0.6)	37 (22.7)	90 (55.2)	27 (16.6)	8 (4.9)	163 (100.0)	
	읍면동	5 (4.2)	35 (29.7)	52 (44.1)	18 (15.3)	8 (6.8)	118 (100.0)	

학교에서 받았던 진로교육이나 지도가 자신의 장래 진로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은 전체의 2.0%이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26.4%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51.4%이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인원은 14.2%이다. 이를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년별( $F=7.499$ ,  $p=0.006$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에서 받았던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장래 진로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학생들이 보통이라 답하였고, 28.4%의 학생만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는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별로 보면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1학년 33.1%, 3학년 24.4%로 3학년이 낮게 나타나 진로계획이 더욱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시기의 3학년 학생이 진로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진로탐색엔 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제주도 29.2%, 서귀포시 23.3%, 읍면동 33.9%로 서귀포시 지역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 3) 진로교육의 내용

〈표 4〉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의 내용 (단위 :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적성흥미검사	294	43.8	65.2
직업세계 정보와지도	48	7.1	10.6
직업현장 방문	11	1.6	2.4
진학정보	35	5.2	7.8
기타	63	9.4	14.0
합계	451	67.1	100.0
무응답	221	32.9	
합계	672	100.0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적성 흥미검사’가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세계 정보와 지도’가 10.6%를 보였다.

이 결과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내용이 ‘적성흥미검사’에 치우쳐 있음을 말해준다. 진로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학생들의 관심을

끝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적용돼야 함에도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진로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학생들이 받고 싶어 하는 진로교육 내용

〈표 5〉 학생들이 받고 싶어 하는 진로교육 내용 (단위 : 명, %)

		직업적성 소질정보	유망직업 정보	진학정보	자격증정 보	기타	전체	$\chi^2(p)$
전체		366 (55.2)	87 (13.1)	141 (21.3)	60 (9.0)	9 (1.4)	663 (100.0)	무응답 9
성별	남	168 (49.9)	58 (17.2)	67 (19.9)	39 (11.6)	5 (1.5)	337 (100.0)	17.807 (0.001)
	여	198 (60.7)	29 (8.9)	74 (22.7)	21 (6.4)	4 (1.2)	326 (100.0)	
학년	1학년	186 (57.8)	45 (14.0)	52 (16.1)	37 (11.5)	2 (0.6)	322 (100.0)	15.424 (0.004)
	3학년	180 (52.8)	42 (12.3)	89 (26.1)	23 (6.7)	7 (2.1)	341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23 (53.5)	6 (14.0)	10 (23.3)	4 (9.3)	0 (0.0)	43 (100.0)	29.714 (0.020)
	중상	106 (60.9)	25 (14.4)	31 (17.8)	11 (6.3)	1 (0.6)	174 (100.0)	
	중	135 (54.0)	33 (13.2)	58 (23.2)	22 (8.8)	2 (0.8)	250 (100.0)	
	중하	77 (57.0)	20 (14.8)	23 (17.0)	11 (8.1)	4 (3.0)	135 (100.0)	
	하	17 (34.7)	3 (6.1)	17 (34.7)	10 (20.4)	2 (4.1)	49 (100.0)	
부모님 맞벌이 여부	맞벌이 함	240 (52.9)	65 (14.3)	106 (23.3)	40 (8.8)	3 (0.7)	454 (100.0)	12.723 (0.013)
	맞벌이 안 함	120 (60.9)	22 (11.2)	30 (15.2)	19 (9.6)	6 (3.0)	197 (100.0)	

진로교육을 받는다면 알고 싶은 교육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직업 적성·소질 정보’에 응답한 인원이 55.2%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진 학정보’는 21.3%, ‘유망직업 정보’는 13.1%, ‘자격증 정보’는 9.0%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성별( $\chi^2=17.807, p=0.001$ ), 학 년별( $\chi^2=15.424, p=0.004$ ), 학업성적 수준별( $\chi^2=29.714, p=0.020$ ),

부모님 맞벌이 여부( $\chi^2=12.723$  ,  $p=0.013$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직업적 성·소질 정보’라는 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탐색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남녀별로 봤을 때 여학생이 60.7%, 남학생이 49.9%로 여학생이 ‘직업적성 및 소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으며, ‘유망직업 정보’에 대한 응답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57.8%, 3학년 52.8%가 직업적성·소질정보를 알고 싶어 했고, 3학년 학생 중 26.1%는 ‘진학정보’를 알고 싶어 했다. 학업성적 수준별로 보면 대부분 직업적성과 진학정보를 알고 싶어 했으나 하위 수준의 학생들은 ‘자격증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비율도 20.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수준별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교육 내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관련 만족도

<표 6>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관련 교육 만족도 (단위 : 명, %)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못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전체	R(p)
전체		17 (2.6)	151 (22.7)	367 (55.1)	98 (14.7)	33 (5.0)	666 (100.0)	무응답 6
학년	1학년	11 (3.4)	94 (29.0)	183 (56.5)	23 (7.1)	13 (4.0)	324 (100.0)	29.999 (0.000)
	3학년	6 (1.8)	57 (16.7)	184 (53.8)	75 (21.9)	20 (5.8)	342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1 (2.3)	7 (16.3)	26 (60.5)	5 (11.6)	4 (9.3)	43 (100.0)	30.565 (0.015)
	중상	6 (3.5)	48 (27.7)	78 (45.1)	36 (20.8)	5 (2.9)	173 (100.0)	
	중	7 (2.8)	62 (24.6)	141 (56.0)	27 (10.7)	15 (6.0)	252 (100.0)	
	중하	2 (1.4)	22 (15.9)	91 (65.9)	19 (13.8)	4 (2.9)	138 (100.0)	
	하	1 (2.1)	7 (14.6)	26 (54.2)	9 (18.8)	5 (10.4)	48 (100.0)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관련 교육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2.6%, ‘만족한다’는 22.7%, ‘보통’은 55.1%, ‘만족하지 못한다’는 14.7%,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5.0%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변인별로 분산분석한 결과 학년별( $F=29.999, p<0.001$ ), 학업성적 수준별( $F=29.999, p<0.00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비율은 25.3%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학년별로 보면 만족하는 비율이 1학년은 32.4%인데 비해 3학년은 18.5%,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은 1학년이 11.1%인데 반해 3학년은 27.7%로 나타나 3학년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진로교육의 경험이 많은 3학년이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진로교육이 아직 학생들의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학업성적 수준별로 보면 중상위 그룹 학생들의 만족 비율과 불만 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상위 그룹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진로교육 방법

<표 7>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진로교육 방법 (단위 :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현장견학·실습	337	50.1	50.2
교과와 연계하여수업시간	79	11.8	11.8
전문가 초빙 강의	71	10.6	10.6
진로담당교사를통해	96	14.3	14.3
별도의진로교육프로그램	66	9.8	9.8
기타	22	3.3	3.3
합계	671	99.9	100.0
무응답	1	0.1	
합계	672	100.0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전체인원의 50.2%의 학생들이 ‘현장견학·실습’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진로담당교사를 통한 교육’ 14.3%, ‘교과와 연계한 수업시간’ 11.8%, ‘전문가 초빙강의’ 10.6%, ‘별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9.8% 등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 교육을 받기 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세계의 현장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우리나라는 직업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여 학생들의 체험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방법이고, 2006 PISA조사결과 OECD 국가 중에 체험형 진로교육 제공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체험형 진로교육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 2. 진로 의식

### 1) 자아 이해

#### (1) 최종 인생목표

〈표 8〉 최종 인생목표 (단위 : 명, %)

		돈	명예	권력	인기	봉사	기타	아직 없다	전체	$\chi^2(p)$
전체		223 (33.4)	96 (14.4)	54 (8.1)	30 (4.5)	28 (4.2)	74 (11.1)	162 (24.3)	667 (100.0)	무응답 5
성별	남	134 (39.3)	57 (16.7)	18 (5.3)	7 (2.1)	26 (7.6)	30 (8.8)	69 (20.2)	341 (100.0)	26.610 (0.000)
	여	89 (27.3)	39 (12.0)	12 (3.7)	21 (6.4)	28 (8.6)	44 (13.5)	93 (28.5)	326 (100.0)	
지역별	제주시	96 (31.4)	45 (14.7)	12 (3.9)	16 (5.2)	24 (7.8)	38 (12.4)	75 (24.5)	306 (100.0)	9.816 (0.632)
	서귀포시	73 (32.6)	32 (14.3)	9 (4.0)	9 (4.0)	21 (9.4)	20 (8.9)	60 (26.8)	224 (100.0)	
	읍면동	54 (39.4)	19 (13.9)	9 (6.6)	3 (2.2)	9 (6.6)	16 (11.7)	27 (19.7)	137 (100.0)	
경제 수준	상	4 (16.0)	7 (28.0)	2 (8.0)	1 (4.0)	3 (12.0)	1 (4.0)	7 (28.0)	25 (100.0)	38.163 (0.033)
	중상	61	25	8	8	13	13	19	147	



		(41.5)	(17.0)	(5.4)	(5.4)	(8.8)	(8.8)	(12.9)	(100.0)	
	중	119 (32.1)	50 (13.5)	16 (4.3)	11 (3.0)	25 (6.7)	41 (11.1)	109 (29.4)	371 (100.0)	
	중하	34 (33.3)	11 (10.8)	4 (3.9)	7 (6.9)	9 (8.8)	16 (15.7)	21 (20.6)	102 (100.0)	
	하	5 (26.3)	2 (10.5)	0 (0.0)	1 (5.3)	4 (21.1)	2 (10.5)	5 (26.3)	19 (100.0)	
부모님 맞벌이 여부	맞벌이함	170 (37.0)	68 (14.8)	25 (5.4)	16 (3.5)	30 (6.5)	48 (10.4)	103 (22.4)	460 (100.0)	15.947 (0.014)
	맞벌이 안함	51 (26.0)	26 (13.3)	5 (2.6)	10 (5.1)	23 (11.7)	26 (13.3)	55 (28.1)	196 (100.0)	

인생의 최종목표를 묻는 질문에 목표가 있다는 학생은 75.7%, ‘아직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4.3%였다. 최종목표가 있다고 반응한 학생들 중에 ‘돈’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3.4%로 타 목표와 비교해볼 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 ‘명예’는 14.4%, ‘봉사’는 8.1%, ‘권력’은 4.5%, ‘인기’는 4.2%로 나타나고 있다. 변인별 분석 결과 성별( $\chi^2=26.610, p<0.001$ ), 경제적 수준별( $\chi^2=38.163, p=0.033$ ), 부모님 맞벌이 여부( $\chi^2=38.163, p=0.033$ )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인생의 최종목표가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없는 학생도 24.3%로 다소 많은 편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20.2%)보다 여학생(28.5%)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지역이 26.8%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았다. 인생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해주고 도전적 삶을 살게 해주는 요소이므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생의 최종목표를 돈에 두고 있는 학생 33.4%는 전국적인 조사 결과인 ‘2009 진로교육 지표조사’의 38%보다는 낮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돈을 인생의 최종목표로 삼는 것은 동일하였다. 경제수준별로 보면 중상위 집단에서 돈에 응답한 비율이 41.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에서 보면 맞벌이 가정 학생의 인생목표가 돈인 비율이 37%로 그렇지 않은 집단 26%보다 11% 높게 나타났다. 돈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삶의 수단에 불과한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서 ‘돈의 노

예'가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돈 다음으로 인생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명예, 봉사, 권력, 인기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9 진로교육 지표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별로 비교했을 때 인생목표가 돈, 명예, 권력인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 보면 상위 집단에서는 돈(16%)보다 명예가(28%)가 높게 나타났고, 하위 집단에서는 봉사에 응답한 비율도 21.1%로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 (2) 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

〈표 9〉 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 (단위 : 명, %)

		진로	성적	친구	가족	건강	기타	전체	$\chi^2(p)$
		129 (19.5)	384 (58.0)	35 (5.3)	25 (3.8)	32 (4.8)	57 (8.6)	662 (100.0)	무응답 10
학년	1학년	40 (12.3)	169 (52.0)	26 (8.0)	18 (5.5)	25 (7.7)	47 (14.5)	325 (100.0)	71.168 (0.000)
	3학년	89 (26.4)	215 (63.8)	9 (2.7)	7 (2.1)	7 (2.1)	10 (3.0)	337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10 (23.8)	15 (35.7)	3 (7.1)	2 (4.8)	6 (14.3)	6 (14.3)	42 (100.0)	48.831 (0.000)
	중상	48 (27.9)	78 (45.3)	11 (6.4)	7 (4.1)	6 (3.5)	22 (12.8)	172 (100.0)	
	중	47 (18.7)	156 (62.2)	9 (3.6)	11 (4.4)	9 (3.6)	19 (7.6)	251 (100.0)	
	중하	19 (13.7)	95 (68.3)	9 (6.5)	4 (2.9)	7 (5.0)	5 (3.6)	139 (100.0)	
	하	3 (6.5)	31 (67.4)	3 (6.5)	1 (2.2)	4 (8.7)	4 (8.7)	46 (100.0)	

현재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에 대해서는 '성적'이 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 19.5%로 나타났다. 그 외 항목들은 10% 미만의 반응을 보였다. 변인별 분석 결과 학년별( $\chi^2=71.168$ ,  $p<0.001$ ), 학업성적 수준별( $\chi^2=71.168$ ,  $p<0.001$ )로 유의

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3학년이 되면서 성적과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1학년보다 많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학업성적 수준별로는 타 그룹에 비해 중상위 그룹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에 대하여 고민하는 비율이 높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하는 3학년 학생들이기에 1학년 학생보다 성적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과 함께 고등학교의 종류와 입시제도 등이 다양해지면서 진로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3학년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진로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3) 학교 공부의 의미

〈표 10〉 학교 공부의 의미 (단위 : 명, %)

		좋은 직업을 갖는 데 도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해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전체	$\chi^2(p)$
전체		333 (50.4)	99 (15.0)	98 (14.8)	27 (4.1)	104 (15.7)	661 (100.0)	무응답 11
학년	1학년	169 (52.0)	51 (15.7)	54 (16.6)	5 (1.5)	46 (14.2)	325 (100.0)	13.095 (0.011)
	3학년	164 (48.8)	48 (14.3)	44 (13.1)	22 (6.5)	58 (17.3)	336 (100.0)	

공부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좋은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50.4%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해결’ 15.0%,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14.8%, ‘도움이 전혀 안 된다’ 4.1%,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15.7%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를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년별( $\chi^2=13.095$ ,  $p<0.01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80.2%)이 공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도와주는지 잘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19.8%로 10명중 2명 정도의 학생은 학교 공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별로 보았을 때 학교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비율이 1학년 학생(15.7%)보다 3학년 학생(23.8%)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공부가 미래의 직업세계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학생들은 학업성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시 학교공부와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관련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교과교육에서도 진로와 연계한 통합교육을 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장래 희망직업

〈표 11〉 장래 희망직업 (단위 : 명, %)

	남	여	전체	$\chi^2(p)$
교직	17 (7.8)	60 (26.1)	77 (17.2)	94.333 (0.000)
사업가	8 (3.7)	6 (2.6)	14 (3.1)	
공무원	49 (22.6)	22 (9.6)	71 (15.9)	
프로게이머, 프로그래머	10 (4.6)	3 (1.3)	13 (2.9)	
학자	24 (11.1)	8 (3.5)	32 (7.2)	
디자이너	4 (1.8)	21 (9.1)	25 (5.6)	
연예방송인	7 (3.2)	23 (10.0)	30 (6.7)	
회사원	12 (5.5)	12 (5.2)	24 (5.4)	
의사	22 (10.1)	29 (12.6)	51 (11.4)	
요리사	22 (10.1)	18 (7.8)	40 (8.9)	
동물관련직업	4 (1.8)	7 (3.0)	11 (2.5)	
운동선수	24 (11.1)	1 (0.4)	25 (5.6)	
문화예술	5 (2.3)	14 (6.1)	19 (4.3)	
자영업	9 (4.1)	6 (2.6)	15 (3.4)	
전체	217 (100.0)	230 (100.0)	447 100.0	

장래 희망하는 직업은 교직을 원하는 학생이 17.2%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15.9%로 나타났다. 그 외 의사 11.4%, 요리사 8.9% 등으로 나타났고, 성별( $\chi^2=94.333, p<0.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교직의 경우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영어 교사, 교수 등 다양했으며, 공무원도 9급에서부터 외관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희망직업은 공무원(22.6%), 학자, 운동선수, 의사, 요리사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희망직업은 교직(26.1%), 의사, 연예방송인 순으로 나타나 남녀 별로 희망직업은 차이가 컸다.

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 중 공무원, 교직,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44.9%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을 살리기보다 고용안정성을 중시하는 부모세대의 가치관이 파급된 결과 현재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인 인기직업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직업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직업선택에 있어서 일부 직종으로 쏠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고등학교의 자율화 및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임을 인지 시키고, 다양한 직업세계와 변화하는 미래에 적합한 직업들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전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그러한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점을 느끼게 하는 진로교육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 (5) 진로에 대한 생각 정도

평소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관해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평소 ‘생각한다’는 인원은 408명으로 응답 인원의 63.1%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각하지 않는다’는 11.4%, ‘잘 모르겠다’는 25.5%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 $\chi^2=8.560, p=0.014$ ), 학업성적 수준별( $\chi^2=16.185, p=0.040$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소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생각하지 않는다와 모르겠다는 비율도 36.9%로 다소 높았다. 성별로는 진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남학생 14.8%, 여학생 7.9%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

적 수준별로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와 직업에 대하여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미래 사회는 지속적이고 빠른 변화의 세계임을 인식시키고, 그에 따라 평생 동안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개발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교육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표 12〉 진로에 대한 생각 정도 (단위 : 명, %)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chi^2(p)$
전체		408 (63.1)	74 (11.4)	165 (25.5)	647 (100.0)	무응답 25
성별	남	205 (62.1)	49 (14.8)	76 (23.0)	330 (100.0)	8.560 (0.014)
	여	203 (64.0)	25 (7.9)	89 (28.1)	317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32 (76.2)	4 (9.5)	6 (14.3)	42 (100.0)	16.185 (0.040)
	중상	123 (72.8)	12 (7.1)	34 (20.1)	169 (100.0)	
	중	147 (60.5)	31 (12.8)	65 (26.7)	243 (100.0)	
	중하	78 (57.8)	17 (12.6)	40 (29.6)	135 (100.0)	
	하	25 (53.2)	9 (19.1)	13 (27.7)	47 (100.0)	

#### (6) 흥미·적성에 대한 인지 정도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0%, ‘대체로 알고 있다’는 60.9%, ‘모른다’는 29.1%의 반응을 보였다. 이를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별( $\chi^2=14.898$ ,  $p<0.002$ ), 지역별( $\chi^2=13.554$ ,  $p<0.03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의 흥미·적성에 대하여 알고 있는 비율이 70.9%로 높게 나온 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의 결과로 보인다. 학년별 분석에서는 흥미·적성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3학년 64.5%, 1학년 77.7%로 3학년이 1학년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다. 이는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하는 3학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시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흥미·적성을 알고 있는 학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8%,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60.3%로 나타났다.

김경식(2008)은 전문계 고교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학교 적응도가 낮고, 조정미(2009) 역시 고교생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나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은 중학교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13〉 흥미·적성 인지 정도 (단위 : 명, %)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	$\chi^2(p)$
전체		67 (10.0)	406 (60.9)	179 (26.8)	15 (2.2)	667 (100)	무응답 5
학년	1학년	39 (12.1)	212 (65.6)	66 (20.4)	6 (1.9)	323 (100.0)	14.898 (0.002)
	3학년	28 (8.1)	194 (56.4)	113 (32.8)	9 (2.6)	344 (100.0)	
지역	제주시	36 (11.8)	194 (63.4)	68 (22.2)	8 (2.6)	306 (100.0)	13.554 (0.035)
	서귀포시	13 (5.8)	135 (60.3)	73 (32.6)	3 (1.3)	224 (100.0)	
	읍면동	18 (13.1)	77 (56.2)	38 (27.7)	4 (2.9)	137 (100.0)	

(7) 자신의 소질 탐색에 대한 욕구

자신의 소질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지에 대하여 ‘매우 알고 싶다’는 인원은 320명(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고 싶다’는 인원은 291명(43.7%)의 결과를 보였다. 반면 알고 싶지 않다는 반응은 낮았다. 이를 변인별로 분산분석한 결과 성별( $F=12.125, p < 0.007$ ), 학년별( $F=8.456, p < 0.037$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14〉 자신의 소질 탐색에 대한 욕구(단위 : 명, %)

		매우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별로 알고 싶지 않다	전혀 알고 싶지 않다	전체	$\chi^2(p)$
전체		320 (48.0)	291 (43.7)	48 (7.2)	7 (1.1)	666 (100.0)	무응답 6
성별	남	143 (41.8)	164 (48.0)	30 (8.8)	5 (1.5)	342 (100.0)	12.125 (0.007)
	여	177 (54.6)	127 (39.2)	18 (5.6)	2 (0.6)	324 (100.0)	
학년	1학년	138 (42.7)	153 (47.4)	29 (9.0)	3 (0.9)	323 (100.0)	8.456 (0.037)
	3학년	182 (53.1)	138 (40.2)	19 (5.5)	4 (1.2)	343 (100.0)	

자신의 소질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지에 대하여 매우 알고 싶다고 알고 싶다는 학생이 91.7%로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의 소질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매우 잘 알고 있는 학생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의 특성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소질에 대한 탐색 욕구는 여학생이 93.8%로 남학생 89.8%보다 높았으며, 3학년이 93.3%로 1학년 90.1%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중학교 단계에서 강조되는 진로 탐색을 함에 있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자신의 내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것처럼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알게 되고, 자신의 꿈을 분명하게 구체화시켜 갈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가 요망돼 보인다.

## 2) 진로선택의 경향

### (1) 진로선택 시 상의 대상

진로선택에 대한 문제는 주로 누구와 상의하는지에 대하여 ‘부모님’



60.8%, ‘친구나 선배’ 14.7%, ‘친척이나 형제자매’ 7.1%, ‘선생님’ 5.0%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에 대한 상의 대상을 변인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성별( $F=14.469$ ,  $p<0.013$ ), 학년별( $F=20.023$ ,  $p<0.001$ ), 학업성적 수준별( $F=43.724$ ,  $p<0.002$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5〉 진로선택 시 상의 대상 (단위 : 명, %)

		부모님	선생님	친구나 선배	친척이나 형제자매	사설 교육기관	기타	전체	$\chi^2(p)$
전체		405 (60.8)	33 (5.0)	98 (14.7)	47 (7.1)	11 (1.7)	72 (10.8)	666 (100.0)	무응답 6
성별	남	214 (63.1)	24 (7.1)	37 (10.9)	21 (6.2)	6 (1.8)	37 (10.9)	339 (100.0)	14.469 (0.013)
	여	191 (58.4)	9 (2.8)	61 (18.7)	26 (8.0)	5 (1.5)	35 (10.7)	327 (100.0)	
학년	1학년	214 (66.5)	15 (4.7)	31 (9.6)	17 (5.3)	8 (2.5)	37 (11.5)	322 (100.0)	20.023 (0.001)
	3학년	191 (55.5)	18 (5.2)	67 (19.5)	30 (8.7)	3 (0.9)	35 (10.2)	344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29 (69.0)	4 (9.5)	4 (9.5)	2 (4.8)	0 (0.0)	3 (7.1)	42 (100.0)	43.724 (0.002)
	중상	121 (71.2)	8 (4.7)	18 (10.6)	6 (3.5)	2 (1.2)	15 (8.8)	170 (100.0)	
	중	160 (63.2)	13 (5.1)	28 (11.1)	19 (7.5)	5 (2.0)	28 (11.1)	253 (100.0)	
	중하	63 (45.0)	4 (2.9)	37 (26.4)	14 (10.0)	4 (2.9)	18 (12.9)	140 (100.0)	
	하	25 (51.0)	4 (8.2)	8 (16.3)	5 (10.2)	0 (0.0)	7 (14.3)	49 (100.0)	

학생들은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선생님과는 거의 상의하지 않고 있고, 주로 학교 밖의 부모나 친구, 선배, 형제 등과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는 진로 정보의 핵심 통로로서 진로 결정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태령(2011)의 ‘학교의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진로계획이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가정 내 변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 결과는 앞으로 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 교사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 (2) 진로선택의 장애 요인

〈표 16〉 진로선택의 장애 요인 (단위 : 명, %)

		적성과 소질을 몰라서	학업 성적	신체적 조건	경제적 여건	부모 의견	전체	$\chi^2(p)$
전체		191 (29.1)	338 (51.4)	32 (4.9)	34 (5.2)	60 (9.1)	657 (100.0)	무응답 17
경제 수준	상	9 (36.0)	10 (40.0)	3 (12.0)	0 (0.0)	3 (12.0)	25 (100.0)	37.914 (0.002)
	중상	47 (32.2)	68 (46.6)	12 (8.2)	2 (1.4)	17 (11.6)	146 (100.0)	
	중	108 (29.8)	192 (53.0)	15 (4.1)	17 (4.7)	30 (8.3)	362 (100.0)	
	중하	25 (25.0)	54 (54.0)	1 (1.0)	13 (13.0)	7 (7.0)	100 (100.0)	
	하	1 (5.3)	12 (63.2)	1 (5.3)	2 (10.5)	3 (15.8)	19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16 (41.0)	6 (15.4)	5 (12.8)	4 (10.3)	8 (20.5)	39 (100.0)	65.632 (0.000)
	중상	67 (39.6)	66 (39.1)	9 (5.3)	8 (4.7)	19 (11.2)	169 (100.0)	
	중	72 (29.0)	134 (54.0)	12 (4.8)	11 (4.4)	19 (7.7)	248 (100.0)	
	중하	25 (17.9)	91 (65.0)	5 (3.6)	7 (5.0)	12 (8.6)	140 (100.0)	
	하	6 (12.8)	37 (78.7)	1 (2.1)	3 (6.4)	0 (0.0)	47 (100.0)	

자신의 진로 선택 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하여 ‘학업성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성과 소질을 몰라서’ 29.1%, ‘부모의견’ 9.1%, ‘경제적 여건’ 5.2%, ‘신체적 조건’ 4.9%로 나타났다. 자신의 진로선택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수준별( $F=37.914$ ,  $p<0.002$ ), 학업성적 수준별( $F=65.632$ ,  $p<0.00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선택 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대부분 학업성적과 적성·소질에 대한 무지로 돌리고 있다. 경제수준별로 보면 학업성적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비율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적성·소질에 대한 무지를 장애요인으로 보는 비율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업성적 수준별로 보면 장애요인을 학업성적

으로 보는 비율은 학업성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고, 적성·소질에 대한 무지를 장애요인으로 보는 비율은 학업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위 그룹 학생들 가운데는 부모와의 의견이 장애요인이라는 학생도 20.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진학 희망 고등학교

〈표 17〉 진학 희망 고등학교 (단위 : 명, %)

		인문계 고교	특수 목적고	전문계고	기타	전체	$\chi^2(p)$
전체		408 (60.9)	168 (25.1)	49 (7.3)	45 (6.7)	670 (100.0)	무응답 2
학년	1학년	166 (51.1)	125 (38.5)	7 (2.2)	27 (8.3)	325 (100.0)	80.455 (0.000)
	3학년	242 (70.1)	43 (12.5)	42 (12.2)	18 (5.2)	345 (100.0)	
사는곳	제주시	199 (64.8)	59 (19.2)	29 (9.4)	20 (6.5)	307 (100.0)	25.233 (0.000)
	서귀포시	119 (53.1)	81 (36.2)	9 (4.0)	15 (6.7)	224 (100.0)	
	읍면동	90 (64.7)	28 (20.1)	11 (7.9)	10 (7.2)	139 (100.0)	
경제 수준	상	16 (61.5)	9 (34.6)	1 (3.8)	0 (0.0)	26 (100.0)	26.490 (0.009)
	중상	92 (62.2)	39 (26.4)	4 (2.7)	13 (8.8)	148 (100.0)	
	중	231 (62.3)	87 (23.5)	29 (7.8)	24 (6.5)	371 (100.0)	
	중하	58 (56.3)	31 (30.1)	10 (9.7)	4 (3.9)	103 (100.0)	
	하	9 (47.4)	2 (10.5)	5 (26.3)	3 (15.8)	19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16 (37.2)	27 (62.8)	0 (0.0)	0 (0.0)	43 (100.0)	117.534 (0.000)
	중상	124 (71.7)	42 (24.3)	3 (1.7)	4 (2.3)	173 (100.0)	
	중	168 (66.1)	58 (22.8)	10 (3.9)	18 (7.1)	254 (100.0)	
	중하	78 (56.1)	28 (20.1)	21 (15.1)	12 (8.6)	139 (100.0)	
	하	16 (32.7)	10 (20.4)	14 (28.6)	9 (18.4)	49 (100.0)	
부모님	맞벌이 함	294	113	27	25	459	9.081

맞벌이 여부		(64.1)	(24.6)	(5.9)	(5.4)	(100.0)	(0.028)
	맞벌이 안함	109 (54.8)	51 (25.6)	22 (11.1)	17 (8.5)	199 (100.0)	

중학교 졸업 후 희망 고교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인문계고 60.9%, 특수목적고 25.1%, 전문계고는 6.7%로 나타났다. 진학 희망 고교에 대하여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별( $\chi^2=80.455$ ,  $p<0.001$ ), 지역별( $\chi^2=25.233$ ,  $p<0.001$ ), 경제수준별( $\chi^2=26.490$ ,  $p<0.009$ ), 학업성적 수준별( $\chi^2=117.534$ ,  $p<0.001$ ), 부모님 맞벌이 여부( $\chi^2=9.081$ ,  $p<0.028$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졸업 후 인문계 고교(60.9%)나 특수목적고(25.1%)를 희망하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보다 3학년이 인문계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귀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특수목적고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이나 학업성적 수준이 낮을수록 전문계고 희망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가 맞벌이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문계고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전문계고 희망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고교에 대하여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고교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요구돼 보인다. 특히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4) 희망직업에 대한 의견이 부모님과 다를 경우 결정방법

<표 18> 희망직업에 대한 부모님과의 의견이 다를 경우 결정방법(단위 :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	482	71.7	72.9
부모님 결정	62	9.2	9.4
선생님과 상의	35	5.2	5.3
모르겠다	82	12.2	12.4
합계	661	98.4	100.0
무응답	11	1.6	
합계	672	100.0	

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하겠다’는 학생이 72.9%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하겠다고 응답하고 있고, ‘부모님 결정’ 9.2%, ‘선생님과 상의’ 5.2%, ‘모르겠다’ 12.2%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결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의사결정 시 합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무엇보다 개개인이 자기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하고, 대안 비교·분석·평가·선택의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경험해봄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역 각 3개교 총 672명 학생이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경험 및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학년별로는 3학년이,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지역이 진로교육 경험이 적었다. 학교에서 받는 진로교육 내용은 적성·흥미검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교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과 진로교육에 만족한다는 학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로교육이 양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 선택을 해야 하는 중 3학생들의 만족도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고 싶어 하는 진로교육 내용은 직업적성·소질

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진로교육 방법은 현장견학이나 실습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현장견학이나 실습 등의 방법으로 직업적성, 소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특히 3학년 학생에 대한 지도 및 서귀포시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정보 탐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정보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학생(45.1%)이 많았으나 1학년보다 3학년 학생이 진로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더 적었고, 진로정보를 얻는 경로는 부모, 인터넷,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탐색은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진로교육 내용이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3학년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아 이해와 관련된 의식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최종 인생목표를 돈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현재 고민은 학업성적, 진로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 희망직업은 교직, 공무원, 의사 등 몇 개의 인기직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고 희망직업이 없는 학생(31%)도 많았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대부분(91.7%)은 자신의 소질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학년보다 3학년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고 소질에 대한 탐색욕구는 더 높아 고교 선택을 앞둔 3학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특히 김경식(2008)과 조정미(2009)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고교 적응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학진로결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은 고교 입학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넷째, 진로 선택의 경향을 보면 진로선택에 대한 상의 대상은 부모님, 친구나 선배, 친척이나 형제자매,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 시 부모와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진로선택의 장애요인으로는 학업성적과 적성·소질에 대한

무지를 들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문계 및 특수목적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고 대학진학의 이유로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분야에 대한 진출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진로 선택 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에 따라 부모에 대한 진로교육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며, 학생들 스스로 진로결정을 함에 있어 소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학생들의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의식을 살펴보면 인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성이나 능력을 지목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그에 못지않게 돈이나 학력이라고 여기는 학생도 많았다.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성과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은 줄고 돈, 학력, 가정배경, 학연·지연이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제주지역 중학생들의 진로교육실태 및 진로의식은 전체적으로 진로교육지표조사나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진로교육 관련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역적 분석에서 임영주(2001)는 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하여 진로교육이 취약하다고 하였으나 제주도의 경우는 읍·면지역보다 서귀포시 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언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도, 시교육청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교육방법은 현장 견학 및 실습이었다. 이를 위해선 도, 시교육청이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들에게 각종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진로교육 방법이 시행될 때 현행과 같은 모순적 관행,

즉 양적으로는 많은 진로교육이 행해지는 반면 실질적 도움은 전혀 안 되는 무늬만의 진로교육을 타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도움 여부, 희망직업 유무 등에서 서귀포시 지역이 일관되게 다른 지역보다 낮은 비율이 나와 진로교육이 취약했다는 점이다. 서귀포 시교육청은 특별히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사실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 시 선생님의 영향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선생님에게서 진로정보를 얻는 학생은 21.4%, 선생님이 희망직업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은 8.0%, 선생님과 미래에 대한 진로선택을 상의하는 학생은 5%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이를 반영해준다. 한마디로 진로와 관련해서는 교사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교사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진로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지침을 마련해주고 더 나아가 진로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학교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이다.

도, 시교육청이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 지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를 교육현장에서 구체화하는 것은 학교 당국이고 교사이다. 학교는 교육과정지침에 따라 실행 가능한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진로교육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적성·흥미검사가 고작이었다. 인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성이나 능력보다 돈이나 학력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것 역시 형식적인 진로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학생들의 빛나간 가치관 교육에서부터 진정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는 여러 학교에서 경험한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실천 방안이나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학교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 관심이 증폭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



실천은 초기단계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나 노하우 등은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진로 관련 교육이 힘들고 귀찮은 업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진로진학상담 관련은 물론 각 교과에서의 진로교육 방법, 실천방안 등 모든 진로교육 관련 노하우들을 교사들 간에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학부모의 입장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진로 선택 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학부모였다. 학부모는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정보원이며 가장 많은 의논을 하는 상대이기도 했다. 문제는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 충분한 자문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학부모의 역량이 구비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학부모 스스로 진로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고교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성격, 적성, 흥미, 잠재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작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진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열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현대의 직업세계는 급속도로 세분화,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의 현명한 진로선택과 진로발달을 통하여 사회와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인 진로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제주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제주지역 중학생들에게 맞는 진로교육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로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김 경 란

(일반사항)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년 ① 1학년 ② 3학년
3. 사는 곳
  - 시 동지역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 시 읍면지역 ① 제주 동부 ② 제주 서부 ③ 서귀 동부 ④ 서귀 서부
4. 학생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5. 학생이 생각하는 학업성적 수준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6. 아버지 학력 수준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이상 ⑤ 기타
7. 어머니 학력 수준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이상 ⑤ 기타

8. 부모님 맞벌이 여부 ① ○ ② ×

진로교육 실태

1.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많다 ➡ 1-1로! ② 몇 번 있다 ➡ 1-1로! ③ 전혀 없다 ➡ 2로!  
1-1. 학교에서 받았던 진로교육이나 지도는 자신의 장래 진로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2. 진로교육이나 지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① 적성·흥미검사 ② 직업세계 정보와 지도 ③ 직업현장 방문 ④ 진학정보 ⑤ 기타
2. 사설 교육기관(학원 또는 진로 전문기관 등)에서 진로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2-1로! ② 없다 ➡ 3으로!  
2-1 사설 교육기관에서 받은 진로교육이나 상담이 장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진로교육을 받는다면 알고 싶은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① 직업적성·소질 정보 ② 유망직업 정보 ③ 진학 정보 ④ 자격증 정보 ⑤ 기타( )
4.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관련 교육 및 상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못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5.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장래 진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보(직업에

서 요구하는 적성과 흥미, 필요한 공부, 자격증, 기술 등)를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할 수 있다 ② 할 수 있다 ③ 보통이다 ④ 할 수 없다
- ⑤ 전혀 할 수 없다

6. 학생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① 선생님 ② 부모 ③ 선배나 친구 ④ 신문, 라디오, TV, 도서 ⑤ 인터넷

7.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책자나 인쇄물의 제공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부족하다
- ⑤ 매우 부족하다

8.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장견학, 실습 ② 교과와 연계하여 수업시간에 ③ 전문가 초빙 강의
- ④ 진로담당교사를 통해 ⑤ 별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⑥ 기타

9. 학교에서 충분한 진로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험준비 때문 ② 진로 정보 자료가 부족해서 ③ 진로 전담교사가 없어서
- ④ 관심이 부족해서

10. 학생이 미래의 진로설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되었으면 하고 가장 바라는 것은?(자유롭게 쓰세요)

---

### 진로의식

11. 학생의 최종 인생목표는 무엇입니까?

- ① 돈 ② 명예 ③ 권력 ④ 인기 ⑤ 봉사 ⑥ 기타( ) ⑦ 아직 없다

12. 학생이 장래 희망하는 직업이 현재 있습니까?  
 ① 예➡ 12-1로! ② 아니오➡ 13으로!
- 12-1 학생의 장래 희망직업은 무엇인가요? \_\_\_\_\_
- 12-2 학생이 미래 희망직업을 결정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 및 선생님 ② 부모님 ③ 사교육, 학원 ④ 사설 진로 및 진학 정보기관 ⑤ 친구 또는 형제자매 ⑥ 스스로 ⑦ 기타 \_\_\_\_\_
13. 평소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① 생각한다 ② 생각하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14.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5. 만약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알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성검사나 흥미검사를 통해서 ② 특기활동을 통해서(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③ 부모님의 유전적 특성을 보고 ④ 기타 \_\_\_\_\_
16. 자신의 소질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① 매우 알고 싶다 ② 알고 싶다 ③ 별로 알고 싶지 않다 ④ 전혀 알고 싶지 않다
17. 장래 자기 진로선택에 대한 문제는 누구와 주로 상의하십니까?  
 ① 부모님 ② 선생님 ③ 친구나 선배 ④ 친척이나 형제자매 ⑤ 사설 교육기관(전문상담기관 등) ⑥ 기타
18. 자신의 진로 선택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적성과 소질을 몰라서 ② 학업성적 ③ 신체적 조건 ④ 경제적 여건 ⑤ 부모의견 ⑥ 성별(남,여)

19. 중학교 졸업 후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인문계 고교 ② 특수 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등)  
③ 전문계고(농업고, 공업고, 수산고 등) ④ 기타
20.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깊이 있는 학문연구 ②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③ 원하는 직업분야 진출 ④ 결혼이나 인간관계에 유리하므로 ⑤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21.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점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좋은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을 준다  
②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  
③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도움이 전혀 안 된다  
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22. 현재 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① 진로 ② 성적 ③ 친구 ④ 가족 ⑤ 건강 ⑥ 기타
23.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생의 성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정의 배경 ② 돈 ③ 학력 ④ 적성과 능력 ⑤ 학연이나 지연
24. 장래 학생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물질적 풍요 ② 사회적 지위나 권력 ③ 사회적 공헌도 ④ 능력과 적성 ⑤ 안정성 ⑥ 장래성 ⑦ 부모님 희망
25.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돈을 벌기 위해 ②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 ③ 남에게 인정받기

- 위해 ④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⑤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26. 여성이 결혼 후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적극 반대 ⑤ 모르겠다
27. 직업에 귀하고 천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조금 있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28.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직업)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29. 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하겠다 ② 부모님 결정에 따르겠다 ③ 선생님과 상의하여 결정하겠다 ④ 모르겠다
30. 학생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조금 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 참고문헌

- 강보영, 『진학보다 진로를 먼저 생각하는 10대의 미래지도』, 노란우산, 2010.
- 강재태·배종훈·강대구,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03.
- 강재태·배종훈,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경상대학교 출판부, 2005.
- 고은영, 「제주지역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운영 실태와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2009.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2009.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009.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진로교육제도화를 위한 진로교육진흥법제정안 입법예고」, 2012.5.3.
-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교과통합진로교육교수·학습자 개발 매뉴얼」, 2010.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2012.
- 김나라 외, 『진로개척을 지원하는 사회과 교과통합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김성관,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은미,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진로교육 내용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자옥, 「중학생 진로교육의 실태 및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종민, 「청소년 직업관·경제관 형성을 위한 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10.
- 김충기,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2000.
- 김충기 외 4인,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동문사, 2011.
- 김태영, 「학교의 진로지도가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승보·방혜진, 「학교 진로교육의 주요현안과 정책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 김승보·박태준·서유정, 「단위학교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원, 2011.
- 마순권, 「중학생의 진로 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백은영,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학부모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진로관련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부교혁, 「제주도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손경희, 「진로개척을 지원하는 사회과 교과통합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송기용, 「중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상준·정윤경, 「진로교육 지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이영대 외,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교육정책연구 2004-일-03), 교육인적자원부, 2004.
- 이지수, 「사회과 교과서의 진로교육 내용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이지연·정윤경·이종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 이지연 외,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구축(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이현정, 「중학교 진로교육의 개선을 위한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임두순, 「중학교 진로교육 강화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2.
- 임연, 「OECD 국가 진로교육 실태 비교분석: 2006 PISA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09.
- 임재연, 「여중생의 진로의식과 직업관에 대한 실태조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장명희 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기본 연구2010-32-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 장석민,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5.
- 정진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과학사, 2010.
- 정예숙, 「중학생의 진로 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 200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 진로교육 추진 계획」, 2012.

조정미, 「고등학생 진로의식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진미석, 「중학생의 진로교육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11.

현석중, 「제주도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진로인식 수준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Abstract

## A Study on the Career Aware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of Jeju Province

Kim Gyoung-Ran\*, Kim Il-Ba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ffer effective career education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researching willingness of decision course in Jeju. It was done to the middle school student living in Jeju, segwiposi, total number of 672 students.

First, considering the experience taken career education or the course decided, many of the students has been an career educational experience but third grade students or segwipo area students has a lest experience chance. Most of the career education course in school was covered with aptitude test and interesting test. I think there are many chance taken to the students with not satisfying the demands, because many of the student expressed the little short of chance satisfied with his demand items. Especially middle school students express the satisfaction a low to be counseling on the choice of high school. In terms of career education, most of the students want to be educated about the aptitude jobs, natural aptitude, and the way of career taken counseling with field training and field trips.

Second, considering the meeting career educational chance exposed to the students, the number of the third grade student was less than it's of

---

\* Master of education, Major in Social Students, Jeju National Universti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ents, Jeju National Universtiy.

the first grade students. The way of the obtaining the information of the career education was cleared to be taken from a parents, an internet and a teacher. It is clearly known that the most important counseling information would be provided to parents and third grade students oneself.

Thirds, one of the most important aims in the life styles related with ego-consciousness is the money and the trouble some are school records and career counseling among the students. The future interesting job was gotten together into the teacher, the government officer and the doctor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at's more there is no plan students. Although many of the students have known what he want to be in the future, they want to get the more career education informations.

Fourths, whom they want to take consult with about future career education are the parents, friends, seniors, relatives, siblings and teachers. When they have met the opinion different from the parents, they want to have decide the future plan themselves. They said that school records and ignorance of aptitude or character prevents them from doing decide the plan. They want to go on a special high school, an academic high school and the college to get a job which they wish.

Fifths, although the greatest number of the students regards aptitude and ability as a facts influenced to the life success, many of the student consider the important things to be a money and an academic ability. The more they become a upper grades the more they have a negative opinions as the money, academic ability, background, regionalism, and the school relations was preoccupied the ability and the aptitude. They agreed to that the married woman has followed to the job market and that all occupation are equally honorable.

Key Words : career education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field training and field trips, career education informations, the future plan, a money and an academic ability.

**교신: 김일방** 690-4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E-mail: heracles@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4. 08. 29.

심사완료일 2014. 10. 03.

게재확정일 2014. 10. 24.

